

2018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새사람인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결혼 날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전쟁을 치러 온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넘치는 찬양을,
심지어 찬양의 희생 제물을 얻으시기 바란다.

2018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새사람인 교회의 영적 전쟁

메시지 1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함

성경: 창 1:26, 28, 엡 2:15, 4:24, 6:11-13, 계 11:15, 시 110:3상

- I.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한다 — 엡 1:9, 11, 2:15-16, 3:9, 4:22-24.
- A.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었다 — 창 1:26, 28.
 - 1.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한 새사람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 엡 2:15, 4:24, 골 3:10-11.
 - 2.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며,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 창 1:26, 28.
 - B.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 28.
 - 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고 땅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 창 1:26, 28, 마 6:10, 13하.
 - 2. 사람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새사람인 교회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 엡 2:15, 골 3:10-11.
 - C. 사람이 사탄이 강탈한 땅을 되찾아 오지 않았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 창 1:28.
 - 1.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 2.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극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반드시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 3. 사탄의 손에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야 한다 — 롬 12:2, 8:28.
 - D. 단체적인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다 — 엡 4:24, 6:11, 13.
 - 1. 전투원인 교회는 새사람인 교회의 한 방면이다 — 엡 2:15.
 - 2.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전투원인데, 이는 새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 — 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 창 1:26, 28, 계 11:15.
- II.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위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들, 곧 물질적인 세계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 — 단 10:12-13, 20-21.

- A. 우리가 물질적인 장면의 배후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싸움, 곧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B.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는 표면에 나타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처리한다 — 엡 2:6, 6:12, 아 4:8.
- C.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큰 이상을 제시해 준다. 이 전쟁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장에 나오는 이상은 우주 안에서 진행되는 실제 상황, 곧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에게 대항해 싸우고 있는 광경을 밝혀 준다 — 계 12:1-4, 7-9, 13, 17.

III.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 마 6:10, 7:21, 사 14:12-14.

- A. 새사람인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계 4:11.
- B.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 마 6:10.
 - 1. 루시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는데,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 겔 28:12-19, 사 14:12-15.
 - 2. 하나님의 천사장이 신성한 의지에 대항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루시퍼의 반역이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 — 비교 계 12:3-11, 갈 5:17.
- C.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 사람의 의지는 반드시 신성한 의지 편에 서야 한다 — 창 1:26, 마 26:39, 12:30, 7:21.
- D.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 엡 6:11-13.

IV.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1:15, 12:10.

- A.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 마 12:26, 28.
- B.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 마 12:22-29.
- C.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싸우셨던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맞서 수행하신 승리에 찬 일을 반드시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 히 2:14, 요일 3:8 하, 골 2:15, 시 149:5-9.
- D.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을 멸하는 것이다 — 마 6:10.
- E. 마귀가 쫓겨나는 곳마다,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 마 12:28.

V.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드리니” — 시 110:3상.

- A.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있으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자원 제물, 곧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 레 22:18, 신 12:6.
- B.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다 — 시 110:3상.